

『韓国語教育研究』(第1号) 別刷

ISSN 2186-2044

【特集】

한국어 교육의 국제화에 대하여

최 용 기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1年9月

한국어 교육의 국제화에 대하여

최 용기

1. 머리말

먼저, ‘한국어 교육의 국제화’ 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한국어의 세계화’, ‘한국어의 국제화’, ‘한국어의 국외 보급’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이런 용어들이 자국 중심의 용어일 뿐 아니라 언어 침략주의 사고방식의 용어라는 지적이 학계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국경 없는 사회’ 나 ‘지구촌은 한 가족’ 과 같은 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어쨌든 ‘한국어 교육의 진흥’ 이라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대외적으로 탄탄한 이론의 토대 위에서 있는 합리적인 정책인지, 한류 열풍의 호황 덕분에 경제 문화적으로 국가적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 열기는 지난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공산권의 몰락과 개방화 속에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 주목 받아 중국, 동남아, 동구권 나라들로부터 한국 배우기가 시작된 결과이다. 이것은 한국어가 배우기 쉽고 우수한 언어 때문이 아니고 한국어학자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기존의 규범 문법이 재미있고 배우기 쉬워서 나타난 결과도 아니다. 물론,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다. 우연으로 보일 뿐 내면적 필연이 누적되어 모든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한국어 학습 열기는 한국의 산업화라는 내적 요인과 한국 문화 상품의 성공적 판매 전략, 공산권 몰락이라는 외적 요인이 어우러져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주변 국가에서 도와준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는 언어 공동체인 의식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언어 자체가 특별한 매력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어 사용자인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가 투영된 산물로 경제적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언어가 공용어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언어 사용 민족이

자기들의 민족어를 강력하게 경제, 산업, 문화의 도구로 성공을 거두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이라는 명제를 두고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세종학당’과 ‘세종사업’이 무엇인지, 한국어 교육 정책과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어의 위상

지구상의 언어는 대략 6,900 여 개가 있다고 전하는데 한국의 언어 즉, 한국어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남한 4800 만 명, 북한 2300 만 명, 해외동포 700 만 명으로 볼 때 약 7,800 만 명으로 제법 대국 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GNP 가 세계 11 위, 총 교역량이 13 위임을 볼 때 한국어는 세계사에서 국제어로 도약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더구나 한국어를 적는 문자 즉,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표음성이 높아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

에스놀로그(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5th ed. 2005)의 언어 통계는 한국어를 사용 인구 수(모국어 화자 중심)에서 13 위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모어 사용자 중심 상위 20 대 언어>

①중국어 ②힌두어 ③스페인어 ④영어 ⑤아랍어 ⑥포르투갈어 ⑦벵갈어
⑧러시아어 ⑨일본어 ⑩독일어 ⑪판자브어 ⑫자바어 ⑬한국어 ⑭베트남어
⑮텔루구어 ⑯마리티어 ⑰타밀어 ⑱프랑스어 ⑲우루드어 ⑳이탈리아어

한편, 2007 년도에 유엔(UN)은 세계 주요 언어 분포와 응용력 조사 자료에서 한국어는 세계 9 위에 속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유엔의 전문 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서 한국어를 9 번째 국제 공개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신흥 독립국으로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대표적 국가인 한국의 언어는 사용 인구가 많아 신흥 대국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나라들이 대부분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전범 국가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바 없는 약소 국가이었고 전쟁의 상처가 가장 오래 남아 아직도 고통 중에 있으며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 속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어 교육은 제 2 언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 / 약칭 KSL) 교육과 외국어로서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약칭 KFL) 교육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재외동포 지역에서 가정이나 교포 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우이고, 후자는 학교의 외국어 학습 차원에서 나타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전자는 재중, 재미, 재일 동포 사회처럼 한국어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후자는 그런 공동체를 상정하지 않고 학습 시수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국어 학습이다.

최근에는 한류의 확산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행, 방문 취업에 따른 비자 발급제 시행, 한국 기업의 현지인 고용 등에 따른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3.1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대학 및 대학원)

현지 대학의 자국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 차원의 ‘한국어 전공 학과’ 또는 ‘한국어 교양 강좌’는 2007 년을 기준으로 64 개국 750 여 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 한국어 수강생은 25 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해외의 대학 중에 일본은 2007 년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은 335 개교이며 이는 일본 전체 대학의 46.9%에 달하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90 년대 중반 수교를 계기로 급속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2006 년을 기준으로 57 개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으며 재학생은 만여 명, 교수는 358 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어과 졸업생의 취직률은 100%이고 한국어과 졸업생은

3~4 개의 회사의 취직자리를 고를 수 있고 월급도 3,000 위안으로 꽤 많은 편이라고 한다.¹

미국에서는 120 개의 정규 대학과 20 개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SAT II-Korean 응시자는 1997 년 2,539 명에서 2006 년 3,888 명으로 늘었다.

유럽 대학들의 한국어 강좌는 북미 지역 대학들에 비해 학생은 적지만 학생들이 거의 교포가 없는 유럽 지역 학생들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단독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에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교육(한자 및 중세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고 1 년 동안 한국 대학에서 교환 연수 과정을 밟게 하는 대학들도 많다. 그리고 많은 대학에 한국학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연재훈(2006)은 현재 서유럽(러시아와 CIS 제외) 지역에는 대략 14 개국 30 여 개의 대학²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고, 최정순(2005)은 유럽(러시아와 CIS 제외) 21 개국 43 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고 했다.³

영국에서 한국어가 중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IGCSE(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의 선택 과목으로 2006 년부터 채택된 것은 영국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아직은 모국어로서의 시험 과목으로만 채택된 것이고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중등학교 시험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위상과 수요가 더 높아져야 한다.

인도는 한국어 과정이 개설된 대학 교육 기관이 4 개에 델리대학교의 한국어 과정 입학 지원자는 450 명으로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2006 년 기준).

¹ 김병운. 『중국 내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자료 개발 방안』 2006 범세계 한국어교육단체. 지역대표자 세미나 자료집.

² 연재훈. 『서유럽 한국어 교육의 특성과 발전 방안』. 2006 범세계 한국어교육단체. 지역 대표자 세미나 자료집.

³ 최정순. 『국의 한국어 보급과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 브랜드화 정책 포럼 자료집. 문화관광부.

호주의 경우 한국어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7 개 있고 15 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주요 7 개 언어에 한국어를 포함하여 가르치도록 권장하고 있다.⁴

러시아는 1990 년 대한민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후 한국어를 강의하는 대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에 한국어를 강의하는 대학교가 40 개나 되고 그 수는 점점 늘고 있다. 국립 극동대학교의 경우 1980 년대에 교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어 문학 강좌 개설을 이루어냈고, 그 후 한국과의 관계 증진으로 교재 연구 및 교수법 서적의 부족을 해결하게 되었고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인적 교류도 시작했다. 그러면서 1994 년 한국어 문학 강좌가 한국학부로 되었고 1995 년 동양학부 소속이었던 한국학부는 한국어문학과, 사학과, 경제학과를 갖춘 단과대 규모의 한국학 대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한국학 대학은 러시아 최초의 ‘한국학 연구 센터’ 를 갖추게 되었고 러시아에서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총 본산이 되었다.⁵

이외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나 한국학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해외 대학들에서의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하려면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합당하게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능력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과정은 해외의 각 대학에서 현지에 맞게 정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기준이 되는 해외에서의 한국어 또는 한국학 전공의 표준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참고로 하여 과목명 등에서의 통일성과 과정의 체계성을 갖출게 될 것이다.

⁴ 신성철, 『대양주 한국어 교육의 재도약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의 모색』, 2006 범세계 한국어 교육 단체, 지역 대표자 세미나 자료집

⁵ 카플란 타마라 Yu, 『러시아 내 효율적인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사 교육 방안의 모색』 2006 범세계 한국어 교육 단체, 지역 대표자 세미나 자료집

3.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

재외 교육 기관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 기관들을 말한다. 재외동포 교육은 구체적으로 재외동포⁶를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어 있는 전일제 한국학교는 물론, 토요 학교, 강습소, 계절제 학교, 재외동포를 위한 방송 통신 체제, 이중 언어 학급이나 민족 학급에 대한 지원 체제, 모국 수학, 귀국자 자녀를 위한 적응 교육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며, 이 밖에도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을 위한 연수나 교재 개발 등의 지원도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 교육 기관에는 대표적으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가 있다. 한국학교는 전일제 정규 학교로 한국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교육하고 한국교육원은 사회교육 기관으로 재외동포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 등을 교육한다. 한글학교는 동포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정시제 주말 학교와 일시 체류자 자녀를 대상으로 본국 연계 차원에서 개설 운영되는 2 종류로 구분된다. 전 세계에 한국학교는 14 개국에 26 개교, 한국 교육원은 14 개국에 35 개원, 한글학교는 2,072 개교이다.

세계 각지의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 자료의 확보가 미흡해서인지 부처 간 통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2007년 6월 기준)

한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 5313호)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통괄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전담 기구로서 ‘재외동포재단’을 외교통상부 산하에 설립하였다. 또한,

⁶ 재외동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재외동포’를 사용한다. 재외동포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며,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민 2세와 3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외동포는 크게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동포로 나눌 수 있다. 재외국민은 재외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만을 의미한다. 외국 국적동포는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을 제외한 한국인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다.

1999년 9월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015호, 약칭: 재외동포법)’을 제정, 재외동포를 국내법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금융, 부동산 등 경제 활동과 의료 보험, 연금 등 사회 복지 혜택도 국내인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교육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교육관 및 교육원, 한국학교신. 증설과 재외동포를 위한 민족 교육 교재 개발 및 제공 등에 해마다 예산 배정을 늘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의 『참여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자료(2006)』에 의하면, 정부는 2005년 ‘재외동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재외동포 기관 및 재정을 확충하고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의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표 1. 재외동포 교육 기관 현황

지역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학교 수	교원 수 (과건)	학생 수 (학급)	교육원	과건 교원 수	동포 수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일본	4	158 (19)	1,725 (75)	14	22	638,546	55	179	2,883
아주	13	512 (29)	4,438 (210)	1	1	2,341,190	250	2,279	22,187
북미	-	-	-	7	8	2,327,619	1,056	9,327	59,474
중남미	3	102 (5)	697 (48)	3	3	105,643	79	641	4,561
구주, CIS	1	8 (1)	120 (14)	10	12	652,131	616	1,748	38,550
아. 중동	4	31 (4)	116 (25)	-	-	11,654	40	275	1,324
계	14 개국 25 개교	811 (58)	7,096 (372)	14 개국 34 개원	46	6,065,129	2,096	14,449	128,979

한국어 교육과 보급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다 보니 중복 사업이 생기고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총괄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 세종학당의 설립과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7년 업무 보고를 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 세계에 이른바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문화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100개, 2016년까지 200개를 목표로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계획은 2008년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에서 1단계(2009년~2011년) 200개, 2단계(2012년~2013년) 160개, 3단계(2014년~2015년) 140개, 모두 500개를 목표로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신규 개설은 150개를, 명칭 전환을 350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4.1 세종학당의 명칭

세종대왕은 조선 시대의 제4대 임금으로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손꼽고 있는 성군이다. 재임 중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개혁을 주도하였고 백성에게는 선정을 베풀었으며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다(百姓即天民). 아울러 우리 민족의 고유 문자인 한글(훈민정음)을 만드신 분이다. 앞부분 ‘세종’은 여기에서 따왔다.

또한, 뒷부분 ‘학당’ (學堂)은 서민과 양반을 구분하지 않은 한민족의 학습 기관인 ‘서당’ (書堂)을 연상해서 따왔지만 한자어 ‘사숙’ (私塾)과 고유어 ‘글방’과도 같은 뜻이며, 개화기에는 ‘학당’이라는 이름이 보편화된 명칭이다. 예를 들어, ‘이화학당’, ‘배재학당’ 등의 ‘~ 학당’과 같은 의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종학당’이라는 명칭은 국립국어원에서 제안하였고 세종학당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세종대왕의 개혁 정신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이름으로 적합하여 한국 정부에서 이를 채택하였다.

4.2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

그동안 한국어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그리고 각 대학(국내외)의 한국학과나 한국어학과에서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정규 교육 차원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고, 외국의 한국학 연구자에게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와 국외 한국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제교류재단과 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비공식 기관인 ‘한글학교’에도 지원해 오고 있다.

두 부처(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훌륭한 성과를 냈지만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외의 한국어 교육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국외의 언어 환경 변화에 대하여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계가 국제화·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뚜렷해지고 각 나라의 말과 글이 문화권역 간의 문화 교류와 정보 소통의 핵심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21 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데 서구 선진 각국은 ‘문화 강국’은 곧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국가 발전 전략으로 문화의 바탕인 자국의 언어를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권역의 확장을 꾀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와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한국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전통문화와 인간 중심의 가치 철학이 결합된 ‘한류’ 문화의 확산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확대의 최대 호기를 맞고 있다.

이런 변화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국외의 언어 환경 변화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한류’ 문화의 영향과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자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실시된 한국의 방문 취업제(중국동포 대상, H-2)가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

둘째, 외국인의 학습 수요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 학습의 주요 대상은 외교관, 학자, 유학생, 재외동포 2세~3세 등이었으나, 이제는 현지의 일반 대중으로 저변 확대되고 있다.

한국어 학습 수요자 증가는 이것뿐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의 국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각국의 공무원,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학습 수요자가 크게 증폭하고 있다.

이렇게 국외의 언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제도권 안에서의 한국어 교육만을 강조해 왔다.

세종학당의 설립 목적은 바로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쌍방향 문화가 교류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 문화와 접맥된 가운데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교육 대상은 현지 외국인과 국외로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근로자와 한국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민이 될 것이다.

4.3 세종학당의 운영 계획

세종학당의 운영은 국외의 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국어학과가 개설된 현지 대학이나 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이 될 것이며 기존 교육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개방형 체제로 운용하게 될 것이다. 세종학당의 운영 방식을 쉽게 말하면 한국의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의 제도와 운영 방식이 될 것이다. 연간 운영비(교재 개발비, 강사료, 기자재 구입비, 시설비 등)는 한국 정부가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될 것이며 수강생은 본인의 교통비와 교재 구입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학습 교재는 기존의 범용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 교재를 점검하여 이를 보완하여 사용할 것이며 앞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 자료(애니메이션 또는 강사 직접 출연)를 활용할 것이며 국내에서 개발한 자료를 현지인이 점검하는 교재가 될 것이다.

5. 세종사업의 추진 방향

이 사업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이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어문 정책으로, 2009 년 한글날을 전후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1)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표준화 (2) 쉬운 언어 사용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 (3)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4) 한글의 홍보와 산업적 활용 제고 방안 모색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표준화 사업으로 한글 표기의 국제적 보편성 제고를 위해 어문 규범 정비를 제안하였다. 어문 규범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말하는데 현행 규범의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을 제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 년 로마자 표기법, 2010 년 외래어 표기법, 2011 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전문 용어 표준화와 언어 정보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범 정부 차원의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해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국제 산업 표준 규격(ISO/TC37)에 맞게 표준화와 규격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언어

정보화 추진을 위해 5 개년 종합 계획을 수립 중이며 문자 코드와 특수 언어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다.

쉬운 언어 사용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국어대사전 전면 개편과 위키피디아 형태의 전자 사전(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개발을 계획하고 한국어 학습용 다국어 사전 편찬과 공공 언어 쉽게 쓰기 증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 지원을 위해 ‘국어생활 종합 상담실’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해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의 명칭을 ‘세종학당’으로 단일화하고 국가별로 현지거점 (세종학당 1) - 직영점 (세종학당 2) - 가맹점(세종학당 3) 형태로 조직화할 계획이다. 세종학당의 숫자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인데 1 단계 200 개(2009 년 35 개, 2010 년 55 개, 2011 년 110 개), 2 단계 160 개(2012 년 80 개, 2013 년 80 개), 3 단계 140 개(2014 년 70 개, 2015 년 70 개) 총 500 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학습 사이트를 위한 ‘누리 세종학당’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한글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도 한글문화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글을 이용한 문화와 산업적 활용 증진을 위해서도 창작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유명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광지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한글날을 국제 규모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국내 한국어 교육의 현황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개화기로 올라갈 수 있으나 1959 년에 창설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나 1969 년에 창설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등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88 서울올림픽 전후라고 할 수 있다. 1986 년에 고려대학교, 1988 년에 이화여자대학교, 1990 년에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앞 다투어 전국의 지방 대학에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도 학위나 비학위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에 국내 한국어 교육 전공 학위 과정(대학, 대학원)은 85 개 대학이고,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단기 양성 과정도 100 여 곳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 교육원과 평생 교육원, 지방 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국에 171 곳,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50 여 곳에 이른다. 한 마디로 그동안 대학교의 어학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어 교육은 대학교의 전문 과정과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가고 있다.

6.1 국내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써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육의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대부분 맡고 있다. 국내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2006 년부터 국어문화원 17 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문화원과 연계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어 수요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교원을 배출하기 위해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등 한국어 교육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원 양성과 재교육 과정,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업무 등을 국립국어원이 전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공통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170 여 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초·중·고급 언어별·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인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한국어 강사는 주로 대학 어학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사 교육’ 을 받은 수료자, 국어 교사 자격증 소지자,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귀화 필기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대학 20 곳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 년부터 귀화 신청 결혼 이민자의 경우, 귀화 필기시험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도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2010 년부터는 모든 귀화 신청 대상자에게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로 일원화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과목을 일정 기간 동안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운영 기관은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지정된 기관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도를 운영하고, 사회 통합과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주관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한국어 강사는 해당 운영 기관의 기존 한국어 강사에 대한 기본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한다. 2008 년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기관·지자체 등 247 개 기관에서 1,014 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데, 한국어 교육이 5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부처 간의 한국어 교육 지원 업무가 다양하여 이를 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해 2010 년 6 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간 업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교원 양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6.2 결혼 이주 여성 대상의 한국어 교육

2010년 6월에 결혼 이주 여성은 18만 2,0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비하면 훨씬 그 숫자가 적지만 한국어 교육 대상자 측면에서 그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과 가정을 이룸으로써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 받게 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국가와 사회적인 관심은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이 갖는 다양한 특성은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명분과 근거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이들의 법적 신분에 대한 판단과 사회 구성원 사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하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지원해 주고 있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축이 되어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 17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국립국어원이 집필하여 제작 배포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한국교육방송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국립국어원과 업무 협정을 맺고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6.3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1990년 초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고 1990년대 후반에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을 계기로 국제결혼 가정이 나타난 지 15년 가까이 되면서 최근에는 이들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2010년 6월 현재에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12만 명에 이르다는 통계도 나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부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부부 간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부모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 자녀들도 교육 문제가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은 주로 취학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도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유아기 교육, 유치원 교육, 방과 후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국립국어원은 이민자 가족의 자녀를 위한 방문 학습지를 개발하여 놀이를 통한 말놀이, 글 놀이, 한국어 놀이 학습 보조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 방송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공중과 방송과 함께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6.4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여 70여 만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 이민자 구성원 중 최대의 집단이다. 이들은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과정부터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세 번에 걸쳐 한국어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첫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 대비 학습 과정이며, 두 번째는 한국에 들어온 후에 일선 근로 현장에 종사하기 전 적응 훈련 과정에서의 한국어 학습 과정이며, 세 번째는 근로 현장에 종사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 기회를 갖게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부설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실제 운영은 민간 자원 봉사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다. 교육 기간은 대체로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주 1 회 2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학습 내용은 문법이나 이론 교육보다는 실제 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회화와 표현 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맞는 한국어 교재가 없는 실정이며 자원 봉사자들의 강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어서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근로 현장의 열악한 학습 환경 때문에 제대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국립국어원은 이들을 돕기 위해 자율 학습까지도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용 한국어 교재 ‘아자아자 한국어 1’ 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6.5 한국어교원의 현황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한국어 교육에서도 한국어교원이 중요하다. 흔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의 실재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준은 실제적인 교육 활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어교원은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국어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6 년부터 2010 년 6 월 현재까지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발급 숫자는 총 4,643 명 (2 급 1867 명, 3 급 2776 명) 이며 내국인은 4,376 명이고 외국인은 267 명이다. 이를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6년 868명 (2급 269명, 3급 599명), 2007년 639명 (2급 185명, 3급 454명), 2008년 842명 (2급 341명, 3급 501명), 2009년 1037명 (2급 613명, 3급 424명), 2010년(2급 459명, 3급 798명)이다.

한국어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자는 이주민, 이주민 자녀, 한국 진입을 준비하는 외국인,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 유학(준비)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교육 장소는 국내외에 걸쳐 있다. 이 중에 교육 장소의 구분이 확실한 것은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 한국 유학생밖에 없다. 이들은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 반면에, 외국인(한국 진입 준비, 한국어 학습자, 한국 유학 준비생)과 재외동포 등은 대체로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지만 국내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의 목적은, 결혼 이주자와 이주 근로자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을 위해서, 이민자 가정의 자녀는 한국인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 거주 교포들은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인들은 한국 입국을 위한 시험과 향후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교원의 전문성이 높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이 전문성을 지닌 한국어교원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어 교육 기관이 한국어교원에게 제공하는 조건을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이 한국어교원만으로는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자원 봉사자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6.6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노력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맡고 있는 국립국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정부 기관으로 1991년 1월에 발족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교육진흥부의 한국어교육진흥과이다. 한국어교육진흥과의 그간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학당 개설을 통한 한국어 국외 보급을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한 세종학당 개선을 2010년 6월 현재 30여 곳이지만 연말까지 90개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500개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관 부처 공동 세종학당 공동 브랜드화 추진, 온라인 누리-세종학당 정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둘째, 한국어 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국립국어원이 개발한 한국어 교재와 교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어 문법 1, 2(2005년), 초급 한국어 4종의 6개 언어(2008년), 중급 한국어 1의 6개 언어,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 부부 공동 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2009년),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중급 한국어 2의 6개 언어, 중급 한국어 1 지침서, 중급 한국어 2 지침서(2010년) 등 표준 한국어 교재의 발간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교육 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있는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좌 개발 방영(2007년, EBS), 한국어 교육 홍보 프로그램 제작 방영(2009, YTN), 한국어 교육 DVD 제작 배포(SBS, MBC) 등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아울러 이주민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습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56주용 학습지와 수십종의 놀이 도구를 개발하였다.

셋째, 한국어교원 양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 초청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총 34회, 960명), 한국어 전문가를 국외에 정례적으로 파견(총 97지역 186명)하였다. 또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2010년 6월 현재까지 4,643명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였다. 아울러 특화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방문지도사 대상 양성과정, 주한 미 8군 한국군지원단 대상 양성과정,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연 300명 참가)를 매년 개최하여 한국어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학회 등과 공동으로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어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연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 한국어 모형 연구, 한국어 해외 사이트 조사, 한국어 교육 기관 조사, 한국어 교재 백서 등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7. 한국어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조건

7.1 한국어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외적 조건

(1) 국가 선진화: 국가 경제력, 국가 경쟁력의 선진화

현재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중상위권이므로 선진화를 위해 정치, 경제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국토 면적(109 위), 인구(25 위) 등 절대 규모에서는 뒤지는 편이나 경제 규모를 대변하는 GDP 규모(7930 억 달러)는 세계 10 위에 올라 있다. 또한, 무역 규모는 수출액과 교역 규모(5000 억 달러)에서 세계 12 위에 올라 있다. 교역에서 중계 무역을 제외하면 한국은 세계 9 위에 올라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연감 2004’에 따르면 전체 60개의 평가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은 종합 경쟁력이 35위, 과학 경쟁력이 19위, 기술 경쟁력이 8위였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종합 경쟁력이 23위로 평가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선결 조건 중의 하나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화하는 일이다. 현재 20 위권에 있는 국가 경쟁력을 위로 올려야 한다.

(2) 국가 부패의 투명성 제고

국가의 부패가 낮고 공직자의 부패도가 낮으며 투명도가 높은 나라가 청렴한 국가이다. 국제투명성위원회가 2009년에 발표한 세계 180개국의 부패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브루나이, 오만과 함께 39위에 속한다. 이 순위는 1인당 국민 소득과 거의 비례 관계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40위 이상으로 올라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이다.

한 마디로 한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외적 요소는 한국과 한국 문화권역의 확대이다. 한국과 한국 문화권역의 확대 없이는 한국어 교육의 진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의 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이 매력적임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야 한국어 교육도 진흥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7.2 한국어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내적 조건

한국어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내적 조건과 과제는 한국어 교육 관련 사항으로 정책 기관, 교육과정 개발, 교재, 평가 도구, 교수 학습 분야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각종 자료 개발을 들 수 있다.

(1) 한국어 정책 기관의 역할 분담

- ①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의 재외동포교육과
국립국제교육원(재외동포 자녀 초청 연수 기관)
한국교육원(Korean Center, 동포 지역에 설립한 한국어와 한국학 교육 기관)
한국연구재단(한국학 교수 파견 사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사업 및 한국어 능력 시험 주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 학술 대회, 초청 연수)
-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의 국어민족문화과
국립국어원(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세종학당 교원 연수,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세계화재단(세종학당 운영 지원, 한국어 보급 사업 지원)
한글학회(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 ③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Teen Korean 학습 프로그램 개발)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학 교류, 한국어 교육 사업 지원)
한국국제협력단(한국어 교육자 파견)
- ④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과거에 이들 기관의 한국어 교육 정책이 중복되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한국어 국외보급사업협의회’ 라는 조정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이를 뒷받침하는 운영 규정도 2005 년에 만들어져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4 개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국립국제교육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립국어원,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6 개 사업 기관이다.

그러나 기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중복 사업이 우려되므로 기관별 세부 특성화에 따른 통합 조정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이다. 적어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한 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기관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지원 사업 기관이라는 2 대 축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동포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한국어 교육의 기본 축이 해외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주도록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을 지원하여 이들이 주재국에서 소수 민족의 차별을 받지 않고 정체성을 살려 생존하고 모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 주재국 모두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바람직한 이중 언어 구사자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외국의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동포 교육의 중요성은 폐쇄적 민족주의 차원이 아니라 개방적 민족주의의 전형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 화교나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비교하고 미합중국과 같은 다민족 국가의 민족 융화주의의 정책을 비교 연구하여 좋은 점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2) 한국어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다양화

전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가정에서 비계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에서부터 의도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의 양상은 다양하다.

- ⑤ 학습자 언어권별 교육과정: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남아시아권, 러시아 중앙아시아권, 유럽어권, 남미권 등
- ⑥ 동포 국적별 교육과정: 재외 국적 동포(이민) 자녀 가정교육, 한국적 유학, 주재원 자녀 가정교육, 새터민 및 자녀 가정교육 등
- ⑦ 정규 초중등 교육과정: 외국 초중고 한국어 교육과정(일, 중, 미

등 동포 지역, 귀국자 자녀 국내 적응 교육과정, 귀순자 자녀 한국 적응 교육과정

- ⑧ 정규 고등교육 교육과정: 외국 대학 한국어 교육과정, 교양 한국어 교육과정
- ⑨ 특별 교육과정: 주말 한글학교 교육과정, 주재원 자녀 교육과정
- ⑩ 특수 목적 교육과정: 일반 교육과정, 특수 목적 교육과정(학문, 근로자 교육)
- ⑪ 기관별 교육과정: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원,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 ⑫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과정: 국내외 대학 학위과정, 대학 부설 양성 과정 등

(3) 한국어 교재 개발의 개선

한국어 교재는 매우 다양하고 그 종류도 많다. 그러나 이들 교재는 대부분 범용 교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다양해지고 다민족화해 가고 있는 외국인 학습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특화되고 전문화된 교재가 필요하다. 단순히 범용 교재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지화된 언어권별 교재, 직업에 맞는 교재,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와 단기별 교재 개발도 필요하고, 유학생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 개발도 시급하다.

8. 맺음말

최근에 한국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한국인도 많아지고 국내로 이주하는 외국인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이민자와 이주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주 사회의 진전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기능도 매우 중요해졌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이제 한국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어는 신생 대국 언어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 문화는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국제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어의 독특함과 한글의 과학성이 외국인들의 관심 대상이며 한국의 전통 문화는 그들에게는 신비롭기까지 하다.

한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한국어교원과 한국어 교재이다. 훌륭하고 믿을 만한 한국어교원과 재미있고 특성화된 한국어 교재가 있다면 한국어 교육은 성공할 것이다. 외국인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일반적인 언어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하는 언어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되어야 하며 재외 동포에게는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이민자들에게는 이들이 생존해 가는 수단의 하나로 언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말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국제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한국인이 만들어 가야하며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8),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 보고서.
김중섭(2008),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2007), 세종학당 운영길잡이.
민현식(2005), 한국어교사론,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서아정(2004), 해외 각급학교별 KFL 교육 현황,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 1 차 국제학술대회논문집 .
신현숙(2005), 교육 정책의 과제와 발전 방안,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손호민(2005),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조향록(2005),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최용기(2008),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세종학당 운영 방향, 국립국어원, 글누리.
(2010), 한국어 정책의 이해, 한국문화사 .
최정순(2005), 한국어교사 양성의 현황과 과제, 인문논총,
(건양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제 10 호.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

韓国語教育研究 創刊号 (第1号)

2011年9月15日 発行

発行者 姜 奉植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161-853 東京都新宿区中落合4-31-1

目白大学外国語学部韓国語学科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文慶喆・金鉉哲・李善姫・宋貞熹・柳朱燕

印刷所 (株)ENTERPIA PRODUCTION